

## 不安의 哲學者 『하이텍겔』(2)

-그 現代的 意義와 限界-

朴致祐

二, 하이텍겔哲學의 現代的 意義

『하이텍겔』哲學이 가지는 바 가장 重要的 現代的 意義 또는 現實的 根據는 그의 思想이 不安과 虛無에서 해매이는 오늘의 所謂 絶望的 生存들의 苦惱相을 于先 現象的으로 그려내고 잇을 뿐만 아니라 一步를 나아가 이러한 不安과 虛無를 뜯코 그리로부터 빠져나올 그러한 새로운 血路를 提示하는 듯이 보여지는 點에 잇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血路 打開에 關한 獨特한 手法을 보여주는 듯이 보이는 點에 잇다는 말이다. 이 點은 적어도 『하이텍겔』 研究에 잇서서는 特히 看過되여서는 안되는 點인 것이니 대저 그의 思想이 보여주는 가장 큰 魅力은 그가 『不安』 『無』 등의 諸述語에다 그저 哲學的 意味만을 부쳐서 짓거리고 잇는 點에 잇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不安』 『無』 등을 通하여 다시금 새로히 自我와 및 世界에 關한 深刻한 覺等을 어더보려고 힘쓰고 잇는 點에 숨어잇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點은 『웨스토프』에 잇서서도 同一하다. 이르는 바 『웨스토프의 魅力』이라는 者는 었던 우리 文藝批評家의 말과 가티 거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魅精神的 『롬펜』들의 悲傷한 꿈을 그려낸 곳에 잇는 것은 決코 아니다. 그의 所謂 魅力이란 이러한 悲傷과 絶望을 通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自我와 새로운 『現實』 새로운 『眞實』을 把握하여 보려고 애를 쓰고 잇는 그 點에 잇는 것이다. 死를 正面으로 凝視함에 依하여 絶望의 障壁에 몸을 드러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또는 『無』의 探■을 바라보고 突進함으로 말미암아--다시 말하면 絶望的인 現實(人間과 世界)을 向하여 이것을 『悲劇的으로 指定』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覺得을 어더 보려는 그러한 積極的인 意味, 即 『無로부터의 創造』라는 意味를 가졌다는 이 點을 看過한 解說이 잇다면 이저한 解說(?)은 『웨스토프』에 關한 限 完全히 零이다. 『하이텍겔』에 잇서서도 또한 人間 存在의 自己 覺得이 라던지 또는 存在者의 全體로서의 世界에 對한 一種 禪的인 達官(諦觀)이라

던지 이러한 結論을 끄집어내는 點에 잇서서는 兩者의 技術 上 또는 體系 上 相異는 잇슬 망정 根本的인 點에 잇서서는 『웨스토프』와 다를 배 업다. 後에 좀 더 仔細히 說明하러니와 『하이텍겔』도 또한 사람은 自身이 가지는 바 宿命的인 有限性(死)를 汲히 覺悟함이 업시는 參된 自我를 차출 수 업다고 말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全體로서의 存在者의 世界가 가지는 바 넘지 못할 無信과 虛無를 通折히 깨다름이 업시는 이에 對한 究局的인 把握을 어들 수 업다는 意味의 말을 力說하는 點이라든지 이러한 點으로 본다면 『웨스토프』와 全然 同一하다고 할 수 잇다. 一種의 禪的 達觀이라고나 할가. 엇째든 이러한 態度는 詩節이 詩節인 것 만큼 魅力잇는 敎說이 아닐 수 업다. 우리는 이러한 『絶望的 諦觀的』인 人間觀(勿論 그의 積極的 意味는 承認함)에 對한 峻烈한 檢討를 이저서는 아니될 것은 勿論이나 이와 同時에 檢討의 對象이 될 이들 思想 內容에 對한 正當한 內在的 理解도 또한 粗忽히 녀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저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하이텍겔』思想의 內容 紹介에 드러가기 前에 몇마디 미리 적어본 것이다. 以下 簡單한 紹介兼 이야기 해볼 作定이나 詳細한 內容을 紹介하는 것보다도 먼저 思想史的 背景부터 들추어 드러가는 便이 效果잇는 方法가티 생각됨으로 이러한 길을 取해 보기로 한다.

『하이텍겔』哲學 (이 哲學이 그의 思想的 營養을 供給바든) 여러 先驗思想과의 關係에 對해서는 이미 『막스미리안, 벡크』 『오스카, 벡겔』 『과울, 멘첼』 등 여러 哲學者의 손에 依하야 詳細한 說明이 되어 잇다. 各各 조금씩 다른 點도 업지는 안치만 대체로 보아 그의 哲學은 丁抹의 詩人 哲學者 『키에르케골』의 實存思想을 基底로 삼고 이를 『벨그송』 特히 『딜타이』의 生의 哲學의 解釋學的 方法과 『훗셀』의 現象學的 方法에 依하야 料理해서 一層 發展 廓大된 形態로서 『파르메니데스』 以來의 傳統的 存在學을 大成시킨 것이라고 보는 便이 公平된 理解일 것 갓다. 『벡크』와 가튼 사람은 이 외에도 或은 『맑스』와 『넛첸』의 人間觀의 影響을 『멘첼』이나 『푸파이펠』 가튼 사람은 한 거름 더 나가서 『프로이드』 一派의 精神分析學的 思想의 적지 안흔 影響을 指摘하고 잇스나 내 생각으로는 『하이텍겔』哲學이 設使 누구의 影響을 받 벗든지 間에 『方法』이나 『體系』이나 『敍述技巧』 등의 問題를 떠나서 그의 思想 『質容』의 核心을 形成한다고 미더지는 그의 人間觀이 問題되는 限에서는 아모리 보아도 다른 누구보다도 『키에르케골』의 實存思想으로부터 바든 影響이 가장 決定的이 아닌가 한다. 이한러 意味에서 나는 以下 그의 思想을 存在學的 側面이나 解釋學的 側面이나 現象學的 側面에서 보담도 더 한層 實存哲學的 側面에서 即 人間學的 側面에서 보아가기로 한다. 이러한 『途程』

은 事實 또한 (『하이텍겔』 哲學解說에 關한 限) 述者의 敍述이나 讀者의 理解에서나 兩者共히 (一方) 哲學固有의 技術上煩難을 兼하면서 (他方) 大誤를 犯함이 업시 思想 質容의 核心을 잡을 수 잇는 가장 效果的인 『길』도 되는 것이다. 『하이텍겔』 哲學에 잇서서 가장 重要한 部分을 形成함에도 不抱하고 다른 側面에 比하야 特別한 專門敎養을 싸치 안코도 比較的 理解하기 쉬운 部分이 곳 實存哲學的 側面 卽人間學的 側面이라고 생각됨으로써 이다.

나는 以下 比較的 自由로운 立場에서 될 수 잇는 대로 알기 쉽게 그의 思想에 對한 論述을 이러한 『途程』에서 進展식혀 볼까 한다.